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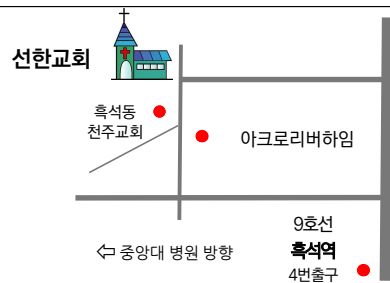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눅 16:13)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1장 (통일찬송가 21장)
교	독 문	교독문 5 (시편 8편)
찬	양 과 경 배	330장 (통일찬송가 370장)
대	표 기 도	조 계 승 장로
말	씀 봉 독	누가복음 16:1~13절
설	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의인과 악인의 언어생활 (잠15:1-15)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명 절 예 배 안 내	12일 금요기도회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설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2.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말씀자료 제공/ 금요기도회는 영상 제공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범위: 갈1장~골]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	---

가정예배

하콜 하벨

찬송 : ‘참 즐거운 노래를’ 482장(통 49)
본문 : 전도서 2장 26절
말씀 :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짧은 선포가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콜 하벨’ 즉 완전히 헛된 것이었습니다.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헛되다고 번역된 ‘헤벨’은 단순히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헤벨’은 우리가 내쉬는 숨, 바람, 안개, 연기 등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바람처럼 금세 사라지며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고 공들여 물을 주고 가꾼다 해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바람처럼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헤벨’이라는 사실을 가장 직접 보여주는 단어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임의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끌어갈 수 없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지키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24시간, 365일 내 뜻대로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므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 설계가 달라집니다. ‘하콜 하벨’이 고백 될 때 우리는 바른길을 걷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삶을 죽음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라”(창 1:28)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콜 하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과 모든 생물 위에 그저 군림하려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하콜 하벨’을 기억하는 사람, 죽음에서부터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이 땅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삶,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은 유한한 이 세상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수고롭게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을 창조하신 분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눅16:1-13)
서론	예수님께서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주신 비유입니다.
본론	1.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의미 (1) 어떤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를 불러 보던 일을 섬하게 함(1-2절) (2)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개인적으로 불러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을 사용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신을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함(3-7절) (3)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칭찬함(8절) (4) 결론적 교훈: ①‘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8절) ②‘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리라’(9절) ③‘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10절) ④‘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느니라’(13절) 2. 교훈 (1)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2)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3)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예비함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유신웅 장로

매일 Q.T.		온유와 겸손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	날짜 : 2월 8일
찬양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본문	마태복음 11:20-30		
말씀요약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인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에 회개하지 않자 책망하십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주님께 오면 쉬를 얻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묵상질문 1	※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만 (11:20-24)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로, 시돈, 소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교만과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11:25-30) 참된 쉬를 얻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나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11:28-29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없애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인생의 무게는 변함없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이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배우며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하면서도 제게 주어진 짐을 무겁게만 느꼈던 심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받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과 불신을 떨쳐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온전한 쉬를 얻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오병이어와 천국 잔치”
찬양과 기도	주 예수 해변서 (새 198)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꽃동네 마을’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죽어 가는 분들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마을은 1978년 9월, 마을 성당의 오웅진 신부와 최귀동 걸인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북 음성 출생인 최귀동 걸인은 일본군의 징용과 강제 노동으로 지병을 얻어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사는 걸인들을 위해 30년간 동냥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웅진 신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당 앞을 지나가는 최귀동을 보았습니다. 오 신부는 최귀동의 뒤를 따라갔고 최귀동은 성당 뒷산에 있는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뼈가 앙상한 여인과 영양실조로 병든 아기와 알코올중독에 빠진 사내가 있었습니다. 최귀동은 이들을 위해 자신이 동냥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옆 움막으로 들어가 소경과 절름발이, 중풍 환자 등 수많은 걸인에게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 신부는 최귀동의 섬김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했던 자신의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오 신부는 다음 날부터 걸인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오웅진 신부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사랑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과 결단이 천국 공동체인 꽃동네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이웃과 세상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14:13~21	
묵상포인트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리가 풍족하게 먹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은 오병이어 기적은 순종과 감사의 열매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 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무리를 마을로 보내 음식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나요?(15~16절)	
적용하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에 우리 공동체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육신의 양식을 풍족히 채워 주실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복	날짜 : 2월 12일
찬양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마태복음 13:1-17		
말씀요약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까닭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서 눈이 볼 줄 알고, 귀가 들을 줄 알면 복이 있습니다.		
묵상질문 1	※ 씨 뿌리는 자의 비유(13:1-9) 씨앗이 뿌려지는 네 부류의 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해지지 않도록 내가 힘써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을 귀와 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13:11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딤후2:4),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감춰졌던 천국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죄의 자리를 자처한 이들은 천국 비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마5:3).		
적용			
오늘의 기도	사람의 지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믿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겸손히 마음 받을 부드럽게 갈아 말씀이 심기고 풍성히 열매 맺도록 온 힘을 쏟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소서.		

매일 Q.T.		택함받은 종의 길, 겸손을 겸비한 공흠 사역	날짜 : 2월 9일
찬양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본문	마태복음 12:1-21		
말씀요약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함이 옳다고 하시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거기를 떠나 사역하십니다.		
묵상질문 1	※ 안식일의 주인(12:1-14)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본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외형만 남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 하나님이 택하신 종(12:15-21) 택하신 종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모습에 드러난 겸손, 순종, 공흠을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나요?		
한절묵상	12:20 고대 근동에서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꺾이고 휘어진 갈대로는 피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 쓸모 없는 '상한 갈대'입니다. 기름을 부어도 타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꺾이고 다 타 버린 소망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제 신념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는 겸손과 순종을, 사람에게에는 공흠과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주님 모습을 선명히 새기길 원합니다. 늘 사랑에 집중하셨던 주님 뜻을 좇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일 Q.T.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	날짜 : 2월 10일
찬양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본문	마태복음 12:22-37		
말씀요약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 합니다. 사람은 심판 날에 자기 말로 의롭다 함과 정직함을 받습니다.		
묵상질문 1	※ 세상 나라를 허무는 예수님의 권능(12:22-30)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 비난했나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묵상질문 2	※ 성령을 쫓는 삶(12:31-37)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무익한 언어 습관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12:28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땀감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땀감에 불이 붙으면 큰 산을 태울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땀감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행10:38). 성령의 능력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제가 내뱉은 말이 심판 날에 의와 죄를 판단받을 기준이 되리라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선한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게 하소서. 매 순간 제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불신을 막아서게 하소서.		

매일 Q.T.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	날짜 : 2월 11일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마태복음 12:38-50		
말씀요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와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십니다. 심판 때 이 악한 세대는 정죄받을 것이며, 그 형편이 귀신들린 것이 나았다가 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분의 형제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묵상질문 1	※ 예수님이 보이실 요나의 표적(12:38-45)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예수님이 보여 주실 표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둔감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12:46-50) 예수님은 어떤 이들을 그분의 가족이라 하셨나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된 자로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12:44-45 집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왕이 머물지 않는 왕궁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커다란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삶은 겉만 화려한 '빈집'일 뿐입니다. 주인 없는 빈집에는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마귀)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성전)으로 가꾸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느라 가장 크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완전한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가족 되게 하소서.		